



지역 소식

복지의 기본원리⁴ ABC 존엄과 자기 존중 *Dignity and Self-Respect*

19 36년에 교회 복지 사업이 소개되었을 때,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은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복지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도움을 주고 받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품을 키우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끌어내며 영적으로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존엄과 자기 존중에 대한 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영적인 복지

존엄과 자기 존중은 내부에서 비롯합니다. 지위나 부, 교육, 재산, 기타 세상적인 업적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존엄을 지니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단념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교리와 성약 18:10)고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전”(고린도전서 3:16)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요한복음 3:16)음을 아는 것은 존엄과 자기 존중을 확립시키는 훌륭한 기초가 됩니다.

현세적인 복지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영원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삶의 일시적인 부분에 몰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열망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을 얻거나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패배자라 여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의 매일 매일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존엄과 자기 존중이 점차 작아지곤 합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며 불안해집니다. 친구와 가족은 연민에 찬 눈으로 우리를 보며, 이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과 신앙, 존엄, 자기 존중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치, 세상, 마침내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니파이전서 2:2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인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들이 모두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주어졌으며 그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는 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받는 사람이 존엄과 자기 존중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야만 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권고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받는 자: 무언가, 어떤 일이든 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겸손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받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언제나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도움은 누군가가 희생한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끝으로, 주님께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부한 자가 낮아짐으로써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 위하여 선포한 방법이니라.”(교리와 성약 104:16) ■



5. 교회의 별이 지다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는 한국 교회의 초석을 닦고 신앙의 선배이자 개척자로서 큰 족적을 남겼던 김호직 형제의 서거에 대해 소개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슬픈 소식은 늘 소나기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늦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959년 8월 28일, 김호직 형제가 쓰러졌다. 서울시 교육 위원장 자격으로 교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김호직 형제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예상치 못하기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었던 장녀 김정숙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찾은 김호직 형제는 가족들에게 “모든 일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도록 해라.”라고 힘없이 이야기를 했다.¹

장녀인 김정숙 자매는 삼청동 선교사 숙소를 찾아가 브라운 장로와 유진 털 장로 등을 깨웠다. 그때가 8월 29일 새벽 2시 30분경이었다. 장로들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김호직 형제에게 병자 축복을 했다. 그러나 브라운 장로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김호직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의 느낌을 받았다.²

그 사이 한국 교회의 젊은 성도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부분이 김호직 형제라는 큰 나무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젊은 성도들은 입원한 그 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병실을 지켰다. 한국의 교회가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 선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바야흐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에 김호직 형제의 부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굳건하리라 생각했던 큰 나무가 쓰러지고 이제 세상의 풍파를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초기 교회의 개척자들은 김호직 형제의 회복을 한 마음으로 소망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소망보다 깊고 컸다.

1959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김호직 형제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상에서의 소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의 귀향은 급박했던 상황에 비해 차분하고 고요했다.

한편 김호직 형제의 서거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슬픔이었다. 장례는 5일장, 절차는 사회장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서울 시장이던 임흥순 시장이 장례 위원장에, 브라운 장로가 부위원장에 지명되었고,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빈소를 찾았다. 김호직 형제의 많은 제자들도 스승의 죽음을 애도했다. 교회 회원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김호직 형제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대략 천 여 명의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그 중에는 정치인이던 장면 박사, 안과 의사로 한국식 타자기를 개발한 공병우 박사, 조경희 전 장관, 임영신 전 장관, 이태영 박사, 음악가 현제명 교수 등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많았다. 건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된 장례식은 후기 성도 식으로 치러졌다. 찬송과 기도가 김호직 형제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한국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김호직 형제는 그렇게 망우리 묘지에 안장되었다.



김호직 형제의 장례 행렬. 종로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모든 일반 차량이 통제된 가운데 김호직 형제의 시신이 운구되었다.



김호직 형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김호직 형제의 장례식.



추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 회원들.



김호직 형제의 묘비. 김호직 형제는 망우리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가 남긴 발자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보조로 참석했던 196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김호직 형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은 한 명당 평균 14명의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개종자의 80%는 대학생이거나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위대한 사업은 대부분 한 회원이 놓은 큰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바로 코넬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김호직 박사입니다. …… 김 박사는 교회 회원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그는 물문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으며 한국에서 진행되던 주님의 사업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위직에 오르게 됨으로써 현재 한국 교회의 위상은 대부분이 바로 그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³

힝클리 회장의 말씀처럼, 한국 교회는 김호직 형제가 있었기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땅을 변화시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첫째도 교회를 사랑하고, 둘째도 교회를 사랑하고, 셋째도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김호직 형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젊은이들의 학비를 지원했던 김호직 형제. 말없이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자상한 아버지 김호직 형제.

김호직 형제가 한국 교회에 남긴 깊고도 큰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의 사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던 한국의 교회가 더욱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김호직 형제가 주님의 곁에서 끊임없이 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주
1. 내 양을 먹이라, 51쪽.
2. 내 양을 먹이라, 51~52쪽.
3. 연차 대회, 1961년, 4월, 89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주를 찬양하라

“만일 네가 즐거우면,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교리와 성약 136:28)

전 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2010년 5월 21일,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이른 아침부터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 관광버스는 오후가 되자 문화센터 주변을 감쌀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다. 멀게는 부산에서 가깝게는 청주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숫자는 약 천 오백 명 이상. 인솔한 고문들까지 더해, 이날의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가 시작되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는 청소년들에게 표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건전한 문화, 특히 아름다운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는 모임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영적인 음악을 듣고, 그리하여 영성이 강해져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컷가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와 심금을 울리는 음률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청소년 부모들의

바람처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는 각 지역에서 준비한 영적이고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이는 장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음악과 춤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열정과 신앙만은 그 어느 무대보다도 빛났던 청소년들의 공연은 천 명이 보내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다.

밴드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라인댄스, 합창, 난타, 기악합주, 요들송, 합창과 어우러진 간증, 뮤지컬, 플래시몹(Flashmob) 등 총 19개 지역의 청소년들이 펼쳐놓은 공연은 그 형식부터 다양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드럼과 전자 기타, 그리고 바이올린의 합주를 통해 SMYC 주제가인 ‘Be Strong’이 흘러나왔고, 합창과 기악의 어우러짐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난타 공연은 그 이름 그대로 심장을 울리는 힘찬 공연이었고, 청소년들의 진실 된 간증과 재미있는 가사가 곁들여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합창은 감동과 함께 웃음도 선사했다. 청소년들의 힘찬 울동이 돋보였던 여러 형태의 라인댄스도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선정적인 동작이 아닌 밝고 건강한 춤사위에 흥겨운 음악이 더해지면서 공연장은 금세 달아올랐다. 의외의 공연도 큰 인기를 끌었다. 청남과 청녀들이 부른 요들송은 그들이 입은 예쁜 옷만큼이나 귀여운 무대였고, ‘도레미송’에 맞춰 하나 둘 인원이 늘어나며 결국 무대를 꽉 채운 플래시몹 공연도 찬사를 받았다.

이날 청소년들의 공연은 그 독창성과 실력뿐만 아니라 표준에 맞는 음악과 춤을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인원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각 지역 마다 적게는 이십여 명, 많게는 팔십 여 명이 넘게 공연에 참여해서 무대를 가득 메웠다. 한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의 2부 순서에서는 일본의 인기 그룹인 ‘Bless 4’가 공연을 펼쳐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002년에 일본에서 데뷔한 ‘Bless 4’는 후기 성도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 남매 그룹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카시, 카나사, 아키노, 아이키 등 ‘Bless 4’ 멤버들은 한 시간 동안 뛰어난 노래와 춤 솜씨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한국 유명 가수의 노래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부른 애니메이션 주제가 등을 선보인 이들 'Bless 4'는 대부분의 공연 진행을 한국어로 준비해 와 더 큰 박수를 받았다. 청소년들은 'Bless 4'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환호했다. 그 환호와 박수는 'Bless 4'가 들려준 간증 이후에 더 커졌다. 표준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Bless 4.' 그 중 형제 멤버인 아카시와 아이키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입국했다. 쑥스러운 듯 머리를 매만지며 머리를 자른 사연을 들려 준 'Bless 4'에게 청소년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소속사와 레코드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지키기 위해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와 춤, 그리고 복장을 마다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공연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Bless 4'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채 공연을 마무리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훌륭한 공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최윤환 장로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는 막을 내렸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임이었던 만큼 우려와 기대가 함께 했지만 모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게 되었고, 향후 있을 SMYC의 성공을 미리 점칠 수 있게 되었다. ■



성전 선교사들 인터뷰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며

한 국 서울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이태 장로와 김선옥 자매 부부, 김종갑 장로와 이미운 자매 부부, 고프(Goff) 장로 부부, 헹게이트(Hungate) 장로 부부, 김만주 장로와 권영숙 자매 부부, 박정빈 장로와 박영미 자매 부부, 양기욱 장로와 김옥선 자매 부부, 그리고 정명숙 자매, 박양효 자매, 이장순 자매가 바로 그들이다.

일 년 삼백육십오일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이들 성전 선교사들의 바람은 한결 같다. 보다 많이, 보다 더 오래 주님께 봉사하는 것. 대부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신앙의 선배이자 개척자인 이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봉사의 계기

김선옥 자매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 방문자 센터에서 만난 나이 많은 자매 선교사를 보고 봉사의 소망을 품었다. 이미운 자매도 비슷한 경우였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평소부터 품고 있었고, 영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실행해 옮긴 것이다. 박정빈 장로와 박영미 자매 부부가 봉사를 하게 된 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의 후반부를 부부 선교사로 마무리 하고 싶었던 두 사람은 자녀들의 자립을 계기로 평생의 소원이었던 선교 사업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김옥선 자매는 젊어서 여러 부름에 봉사했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었다며 활짝 웃었다. 김 자매는 뒤이어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와는 삶의 질이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웃었다. 박양효 자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벌써 두 번째로 성전 봉사를 하고 있다는 박 자매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얻는) 이 기쁨은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자 마음먹은 계기는 푸른 눈의 선교사, 고프 장로 부부와 헹게이트 장로 부부도 비슷했다.

고프 장로 또한 평소에도 항상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고, 큰 사업을 마무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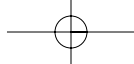
헹게이트 장로 부부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선교 사업이었다. 첫 번째 선교 사업 동안 한국 서울 성전에서 봉사했고, 두 번째는 나부 성전, 그리고 세 번째인 지금 역시 한국 서울 성전이 그들의 보금자리다. 두 사람이 거듭 선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성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전 의식을 돕는 것이 바로 회원들을 돕는 것임을, 헹게이트 장로 부부는 물론이고 다른 성전 선교사들도 확실히 알고 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교 사업을 나오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다른 회원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하자 너도나도 대답을 쏟아냈다. 김만주 장로는 세상적인 일에 매여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 선교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자녀 결혼시키고, 손자를 봐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다보면 결국 나올 수가 없다.”는 김 장로의 말을 이미운 자매가 받았다. “누구에게나 정리할 것들이 있고, 나 역시도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죠.” 김옥선 자매는 재정



지역 소식



왼쪽 위부터: 김종갑 장로 부부, 양기욱 장로 부부, 김만주 장로 부부, 박양호 자매와 정명숙 자매, 김이태 장로 부부, 고프 장로 부부, 형게이트 장로 부부, 박정빈 장로 부부, 이장순 자매.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희들도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했지만 막상 선교 사업을 떠나니 자신의 집이 있는 선교부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돈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게이트 장로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돈은 영원한 사업으로 받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곧 건강 문제로 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선교 사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건강을 꼽았다. 하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될지언정 선교 사업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었다.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 수술을 할 뻔했던 정명숙 자매도, 무릎이 좋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던 김옥선 자매도, 암수술을 했던 김만주 장로도 한 마음으로 웃으며 입을 모았다. “성전에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박정빈 장로 부부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봉사하기 위해 정년을 몇 년 앞당겨 선교 사업을 나온 경우다.

성전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선교 사업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젊은

전임 선교사만큼 건강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들은 봉사 중이다. 성전 선교사들을 봉사의 길로 이끈 것이 각자의 의로운 소망이었다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사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마지막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다.

주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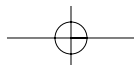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동안 성전 선교사들은 자주 흘쩍였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각자의 간증은 함께 한 모두를 감동시켰다. 침례반에서 봉사하는 김선옥 자매는 어린 청소년들이 대리 침례를 받고, 그것으로 감동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장순 자매는 봉사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참되다.”라는 간증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양기욱 장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깨달음의 연속”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했다. 양 장로는 이어서 “이곳은 토씨하나 틀려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온전함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작고 간단한 일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다른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고프 장로는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지도자들과 젊은 회원들을 보면서 영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다고 말했다. 김만주 장로는 성전 의식문을 상고하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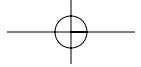
많은 회원들이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운 자매는 성전 사업은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인간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업의 최종 단계”라고 이야기했다. 형게이트 장로는 성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희 성전 선교사들은 그 위대한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200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자녀와 손자손녀들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전 결혼,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등은 모두 지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 즉 봉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선교 지역에 나가 기꺼이 봉사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줄 유산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손자손녀의 재물을 보며 노년을 즐겨야 할 성전 선교사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다. 자부심이 서려있다. 건강과 화평이 함께 한다. 그 비결에 대해 성전 선교사들은 한 마디로 대답한다. “주님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





침례의 물가에서

“드디어 찾은 참된 복음”



나는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겠다고 선언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였다. 나는 종교의 공격적인 가르침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의 선택을 막지는 않았다. 다만 아

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젊은 선교사들의 모범을 보며 후기 성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품었다. 아이들은 곧 침례를 받았다. 나는 그 침례식에도 참석했고, 교회의 다른 모임에도 몇 번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혼란스러운 마음이 쌓여갔다.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 각자의 교회에 참석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나는 종교가 우리 가족의 화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종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다면 우리 집의 종교를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리아호나’를 읽게 되었다. 그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있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며 감탄을 했다.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하거나 요란하지는 않지만 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교회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회원들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는 모습도 신선했다. 교회에 가면 언제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입장이라 무언가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고부터는 그 갈증이 해소되었다. 회개의 원리에 대해 들었을 때쯤에는 내 마음에 확신이라는 씨앗이 싹텄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회개의 원리는 그동안 회개와 용서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나는 침례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물문경을 다 읽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었다. 물문경을

읽는 동안, 이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물문경의 마지막 장을 덮고 주저 없이 침례를 받았다. 지금 나는 소속 지부에서 청년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복음은 사실적인 복음이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준다. 나는 그 가르침들이 모두 참되다는 사실을 안다. ■

신은 자매(부산 스테이크, 괴정 지부)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2명/해외 2명



박동선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타이완 타이페이 선교부



이가하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대전 선교부



우준희 장로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서울 선교부



최혜리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지부 회장: 심종우(전임: Elder Dcrok Chance)
-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감독: 이병환(전임: 김규조)
-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지부 회장: 최진우(전임: 장봉률)
- 홍성 지방부**
지방부 회장: 정석환(전임: 강지훈)

기사를 기다립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다음의 기사를 모집 중입니다.
1. 한국 성도의 소리, 2. 함께 나누는 경전 구절, 3. 침례의 물가에서
기사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번지 3층 한국 관리 본부 자재관리부
전건우 형제 앞. 우편번호)100-456
전화 번호: 02-2232-1441 (내선 564)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건우 형제)

